

# '93월간양계 10대 뉴스

## 양계업 장기불황에 몸살

금년 1월 닭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닭 의해를 맞이하여 서광이 비치는 것으로 보였으나 2월부터 육계, 채란, 부화, 종계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불황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시소계임을 계속해 왔다.

그나마 육계업은 6, 7, 8월에 사상 유례없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0월부터 다시 약세권으로 접어들어 힘없는 한해였다.

병아리 가격도 정상적으로 형성이 된 것은 단지 몇차례에 불과하였고 아예 값없는 병아리 생산의 기간이 더 많았다. 불황이 계속되자 양계업계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부도사태가 속출하였으며 연관업계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는 등 실속없는 적자 경영을 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 천호인티그레이션(주)부도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온 천호그룹이 경영란에 부딪쳐 지난 10월 2일

천호인티가 부도를 냈고 다시 5일에 부회장과 마니육종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는 사태가 발생하여 양계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부도직후 천호인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천호부회장과 마니육종은 구사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경영을 유지해 오면서 사태수습에 나섰다.

특히, 종계개량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온 마니육종의 국산계 개발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업계에서는 정부 및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회생을 모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으나 의견접근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게 하였다.

## '93한국양계박람회 개최

닭의 해를 맞이하여 본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93한국양계박람회가 지난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국양계산업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서울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되어 91,827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양계산업과 관련된 학문적, 기술적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양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국제가금학회사·태 제5차 학술대회도 개최되어 양계인들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14개 회원국의 가금분야 학자, 기술자 및 생산자들이 참석하여 가금육종, 가금영양, 가금번식, 가금생산물 이용, 가금질병 및 위생 등 5주제의 특강과 계사시설과 환경조절, 아시아국가에서의 양계산업을 위한 발전방향 등 2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51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91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UR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품질고급화를 유도하여 소비중대를 꺾고자 각종 이벤트 행사가 병행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 행사로 수준을 높였다고 극찬을 받기까지 하였다.

## 본회 회장에 생산자 처음 선출

본회 제13대 회장에 최준구 삼우농장대표(채란)가 선임됨으로써 본회 출범 후 처음으로 생산자가 회장에 취임하는 이록을 남김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주화된 사회의 분위기와 동조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들을 하였다.

그간 본회는 부화업자와 감별사들이 주축이 되어 양계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왔는데 매년 농가당 사육규모가 커지면서 지도만을 받아오던 실용계업자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되기 시작하여 본회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

면서 양계업의 중심권으로 부상하여 왔다.

그간 본회 회장은 종계, 부화, 감별, 학계 부분에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함양한 중진을 추대하여 회장을 중심으로 움직여 오다가 '91년 임원개선 정기총회시부터 회장선거에 채란계 부분에서 경선을 전제로 후보자를 내어 12대때는 종계부분에서 회장이 선출되었고 93년 제13대 회장에는 채란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생산자 주도의 협회운영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 닭고기 미절단 신선, 냉장육 수입개방

정부의 수입개방정책 일정에 따라 전 양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3. 1. 1부로 닭고기의 미절단 신선, 냉장육에 대한 수입개방이 허용되었다.

실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입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육계값이 상승할 때마다 수입설이 나돌아 일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닭고기는 미국보다는 태국이 위협적인 존재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고속성장을 해오고 있는 이웃 중국이 닭고기에 관련한 커다란 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늦게나마 중국에 대한 시장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직은 통닭상태로는 부가가치가 낮고 위험 부담이 커 수입이 되지 않았으나 신선육 중 절단육이 개방되는 내년부터는 닭다리의 수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부화협회 업무 중단

(사)한국부화협회가 지난 90년 7월 25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정식 출범하였다. 출범당시는 육계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어 육용계를 생산하는 부화장들이 대거 시설투자에 나서면서 부화업계의 판도를 바꾸어 나가면서 부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현재의 대한양계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부화장의 참여가 원활치 못하였고 채란계 부화장의 호응을 얻는데 다소 무리가 따라 업무활성화를 기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93년에 접어들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업무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출범한지 3년이 채 안되어 유명무실화 되었다.

## 부화란 폐기처분을 통한 병아리 생산조절

금년 4월을 전후하여 육용계 병아리 값이 생산과잉으로 가격형성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육계가격도 생산비선 이하로 지속되자 5월 1일부터 7일간 병아리 분양을 중단키로 결의하고 가동중인 부화기내에 들어있는 부화란을 사룡란으로 처분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 결의에는 총 45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479만개의 부화란을 폐기처분한 것으로 집계되어 일주일 물량의 64%를 생산 감축하였다.

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생산과잉이었음에도 불황타개를 위해 참여의식이 높지 못하여 불신까지 하는 현상을 낳아 그 후부터는 생산조절에 대한 어떠한 자구책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 닭고기 CF광고 TV에 방영

금년초 육계경기가 장기간에 걸쳐 불황이 지속되자 소비를 확대시켜 불황을 수습한다는 방안의 하나로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CF광고를 제작하여 TV에 방영하였는데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광고로는 생산자 단체에서 처음 시도한 셈이다.

광고 방영에 따른 비용은 육계업자와 계열화 사업체 및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하여 본회 자조금 사업에 편성하여 정부보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일단 닭고기 가격이 회복되는 시기까지 방영하다가 중단하였고 10월에 불황폭이 커지자 다시 재개하였다가 재원부족으로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 장작불 통닭구이 등장

닭고기에 대한 새로운 신상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위축이 가중되어 오는 가운데 다행스럽게 금년 초부터 유원지를 근거로 하여 신종사업인 장작불 통닭구이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절기인 여름철에는 전체생산량의 약 10%수준을 이들 장작불 통닭구이가 소비를 시킬만큼 급속도로 성업을 이루었다.

양념통닭 이후 이렇다할만한 대체상품이 없어 고전을 계속해온 육계업계에는 가뭄속에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량에까지 탑재하여 기민한 기동성까지 갖추고 도심의 골목까지 등장하기 시작하자 식품위생법 및 도로교통법까지 들고나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염

장 등 맛의 고급화를 시도하지 못하여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떨어지면서 단발성 상품보급으로 끝난 감이 있다.

이런 점들이 보강된다면 내년에는 좀더 깨끗하고 맛있는 장작불 통닭구이가 소비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부화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국제경쟁력을 스스로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지난 6월 11일 부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한다는 축산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였다.

동법 제26조를 보면 부화 및 종축업의 등록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 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종계업은 1천수 이상은 등록 대상이며 동시에 부화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관할 시, 도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부화업의 경우 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위생관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기**

# 철저한 방역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신제품**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 부리절단기



● 병아리 급수통 (워터컵)

1) 니플 및 물통은 국산개발품



● 니플

■ 특 징

- 1) CNC자동선반 기역장치에 의한 제작으로 자체 개발한 국산제품
- 2) 수입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



● 돼지단미기 및 부리절단기

■ 장 점

- 1) 작업시 이동이 용이
- 2) 1인 작업이 가능
- 3) 부리절단과 돼지꼬리절단 겸용
- 4) 축적된 경험으로 자체 개발

저렴한 가격,  
고품질  
국산품 입니다.

**보령산업개발**

주소 : 서울·성동구 성수2가 331-27  
전화 : 461-7887 (주·야)